

기적의 우물물

“저는 정말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.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신경질을 부립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?”

어느 부인이 수도원장인 빈첸시오 페러를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았다. 수도원장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했다. “부인은 매일 우리 수도원의 우물물을 떠다가 집에 두시오.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즉시 그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으시오. 단 그 물을 절대로 삼키지 말고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남편이 밖에 나간 후에 삼키시오. 그렇게 계속하면 놀라운 기적이 생길 것이요.”

이렇게 알려주자 부인은 즉시 수도원의 우물물을 한 병 떠다가 집에 두었다.

남편은 그날 저녁에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악담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. 부인은 즉시 수도원의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집을 나갈 때까지 그 물이 입에서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. 그러자 놀랍게도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지냈다. 그래서 오래 간만에 온 집안이 평화로웠다.

부인은 다음날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도 그것을 실천했다. 마침내 수도원의 우물물이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.

남편의 신경질이 저절로 없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 부인을 남에게 칭찬까지 하였다.

이것은 부인의 말대답이 남편을 짜증나게 한 원인임을 알게 된 빈첸시오 원장의 놀라운 재치와 수도원의 우물물을 빙자해서 한 가정의 평화를 찾게 해준 이야기이다.